

부활 제5주일

기도서 P. 299 C해

제1독서(사도 14, 20-27)  
제2독서(묵시 21, 1-5)  
복음(요한 13, 31-33, 34-35)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42935)

□ 강론



## 그리스도의 세 단계로 가르치는 사랑

김 영 일 신부

나는 당신들에게 새 계명을 하나 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요한 13장 31절)

예수께서는 구약의 정신에 쫓겨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마태오 5장 44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태(同態)복수법 혹은 팔리온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출 21, 24). 이러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단계로 서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네 자신을 사랑한 것 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태오 22, 39)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내 이웃이 되어야 하며 내 이웃이라면 종던 나쁘던 어려운 때에 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며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도 말씀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다 탈취되고, 얻어 맞아 다 죽게 되었을때에 사제나 레위나 동족들은 본체만체 했지만 원수지간 같은 사마리아인은 잘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장면(마태오 25, 35~45)을 보면 이 세상 모든 헐벗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또는 부활의 세계는 우리 다같이 사랑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가지 기억해야 될 사랑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육화(肉化)에 의해서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네는 “사람의 발을 밟으면 그의 입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밟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아프다고 소리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요한 13, 34)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전부를 송두리채 주신 사랑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일방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후에 성령을 보내 주시어 그러한 능력을 실체케 우리들 마음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파티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어떤 一問一答을 보고

—김재규 등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변동될 전망은 없는가.

□ 대법원 판결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일부 항간에서 김재규 구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데...

□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본인은 구명운동에 극소수 종교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 도덕심의 마비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아프게 여기는 바이다. 순수한 종교인의 기본자세가 관용과 사랑이므로 김재규의 죄가 악하고 중하다 해도 용서해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극소수 종교인들이 김재규를 민주투사로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지극히 열려스런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아버를 죽인 자식과 다를바 없는 패륜아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긴급조치 10호를 요청했던 장본인 아닌가. 인륜을 짓밟은 패륜아를 한때의 정치적 계산으로 의사(義士) 운운하며 구명운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극소수 종교인들의 인도주의적 차원보다는 도덕적 퇴패와 윤리관의 말살을 입증하는 해위라 하겠다. (이상은 조수환 中情部長서리 一問一答의 신문 기사에서 그 일부를 옮김)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김재규에 대한 구명운동에 관한 최초의 언론 보도라는 점에 크게 관심을 갖는다.

국민 모두는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의사표시 또한 자유스러워야 한다. 따라서 보도 역시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발표될 中情部長서리의 의견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오해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 숲 정이 산책



# ◀ 농 민 의 소 리 ▶

## 전 자 석

농촌의 모습을 매스컴에서 사실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농민의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보게 살기 좋아졌다는 찬란한 새마을, 조상의 뼈가 묻힌 고향을 등에 두고 오늘도 살지 못해서 농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질러 농촌이 잘 산다고 텔레비전에 경사가 났는데 농민은 생산비도 못되는 농산물 값 때문에 피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길바닥에 버리고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배추밭에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배추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뽑아 가십시오」 마늘 한 집에 3천원 주고 십어 80원, 60원에 팔았고, 돼지 파동으로 4~5만원하던 돼지 새끼가 1천원에도 사가지 않아 죽여 거름에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돼지나물이라 불렀고, 돼지새끼가 배고파 울면 쇠스랑으로 찍어 죽이는 울분은 어떠했습니까?

풍년이 들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원은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야 할 것인데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으니 죽어라 일해도 남는 것은 빚뿐입니다. 차라리 적게 나오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야 적게 손해를 보니까요 농민들의 고운 마음속에는 「내 농사는 잘되고 남의것은 망해라」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정책을 보십시오. 농사해서 농민들이 조금 수지맞으면, 마구잡이 수입을 하고 풍년이 들면 농민은 죽든 말든 (나 몰라) 방치하는 농업정책으로 찬란한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 한톨, 고추 한개, 배추 한 포기든 외국 농산물 50만톤보다 귀중합니다.

옛장수도 영업의 자유가 있고, 고무신 장수도 고무신 만들어 파는 자유가 있는데, 천삼백만 농민만이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품종을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품종 선택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권리인데...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앗만은 머리맡에 베고 주린 배를 참던, 목숨보다 귀중히 여긴 씨앗을... 신품종이 아니라 해서 땅에 쏟아버리고 다른 종자와 섞어 버리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 목표달성이라는 강제농정의 횡포는 이른 봄부터 수매가 끝나는 겨울까지 1년내내 계속됩니다.

비닐, 대쪽이 강제로 배정되고 벌써 확인이 시작되면서 불응하면 위협이 자행되는데, 카메라를 멘 산림제가 신품종을 심지 않으면 술가지를 단속하며 막대기 하나까

지 들고 산림법 위반으로 몰아 잡니다.

못자리를 밭로 짓이겨 버리고 시상금을 위한 십사라 하여 고개속인 벼까지 베어버리는 일들이 농업정책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식량증산 목표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농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부가 농사를 짓는 것인지.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인지? 농민의 희생 위에 기름진 배를 흔들겠다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농민은 살과 뼈를 깎아 질팔릴 쪼는 더위에 농약중독이 되어 잔디를 뜯으며 네 발로 기어다닐 때, 돈많은 사장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골프채로 잔디밭에서 외화를 소비합니다. 농민의 의사를 무시한 수매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 쌀 한 가마에 18,3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좋은 집, 어여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농촌의 총각들은 장가를 못가 찾술을 마시고 부모들은 세를 못받아 한숨을 쉬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취락개선하여 집단 종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골길에 담배 풍초를 버렸다하여 벌금 3천원, 경운기가 시장에가면 교통법규 위반이라 하여 벌금 1만원, 나무하면 3~5만원 벌금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름이 남니까? 연탄이 백두산만큼 묻혀 있습니까? 농민들은 내 산 가지고도 입산금지라 하여 낙엽하나 굽을 수 없고 돼지우리도 고칠 수 없습니까? 수지만 맞는다면 정부에서 기름쓰고 심으라고 안해도 산 꼭대기까지 벼를 심을 겁니다.

그러나 생산해 보면 한만큼 손해보는 농사를 강제권장하는 것은 농민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신품종 재배에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일방적 행정의 강제권장은 농업발전을 깨트리는 결과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마저 농민위에 군림하다보니 조합원을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그늘아래 농민들은 뼈속까지 병들어 쇠약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못살아 도시에 나간 자식들은 애비의 저농산물가격 때문에 공장의 저임금으로 벼판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권리를 무시한 강제농정이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18년간 내려온 농협의 임시조치법 또한 철폐되어야 하고,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모두가 농민과 함께 국민경제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농민회 전북연합회 농민회 총무)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세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세워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⑥ 0921

범 락도(떡배)·이 마리아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플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교회소식 □

### 한국 주교단 춘계 총회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상지회관에서 전국 14개 교구 주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를 갖는다. 주교총회는 한국교회의 제반 중요 문제와 사목, 운영상의 중대하고 긴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우리 교회 최고의 결의 기구다.

이번 총회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어렵고 복잡한 시국에 개최된다는데 더욱 의미가 큰 것 같다. 모쪼록 성령의 들보심과 주의 은총으로 성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손 모아 기도 드리자.

### 교구 사제 피정 및 춘계 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구내 전 신부님들의 피정이 금년엔 부산 성 분도 명상의 집에서 개최 된다. 5월 12일부터 16일 오전까지 김 추기경님 지도로 피정을 하고, 16일 오후에는 춘계 총회를 갖게 된다. 17일에 귀가할 예정이다.

교우들의 신앙지도에 사제들의 영성 함양이 선결요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제 생활의 해신과 보다 풍성한 사목 활력을 되찾는 값진 피정과 회의가 되도록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를 빌어 마지 않는다. 신부님들의 공석중에 각 본당 사도임원들과 수녀님들 및 교우들의 각별한 협력 있으시기 바란다.

#### —사제피정 중 각 본당 유의 사항

1. 평일미사 대신 가능한 말씀의 전례나 기타 기도모임을 갖도록 사도회에서 사전에 준비 할 것.
2. 단체지도나 활동등은 수녀님들과 회장님들이 특별 배려, 대행토록 한다.
3. 병자성사나 장례미사등 긴급을 요할 때는 교구청에 연락, 주선을 받도록 한다.
4. 기타 자세한 것은 본당 신부님들의 충분한 사전 지시를 받도록 할 것이다.

### 전국 평협 총회

5월 22~23일 유성에서 전국 평신도 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모든 신도들을 대표하는 본 총회에서 시의적절한 결의와 효율적인 활동 대책을 수립하도록 보다 큰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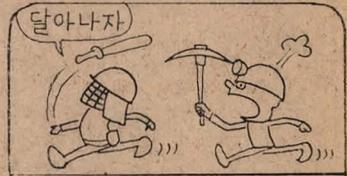
### 제2차 「베델 성서」 개강식

가톨릭 센터 주관 제2회 베델성서 수강자들을 위한 첫 모임(개강식)이 5월 6일 오후 7시 30분 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하느님 말씀의 전달과 복음의 생활화를 위해 새로이 교육에 임하게 되는 강사 신부님과 수강자들에게 주님의 가득한 축복을 빈다.

### 축! 권영균(안또니오) 신부님 회갑

5월 8일 오전 11시 30분 축하미사(화산 본당에서)  
—주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교우일동

### 요심이 (353)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덧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 점 열)  
전화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 문화양행

오 증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8188 (자 0369)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로 도장공사 청구(상담)

###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도사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 백제공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방송시간 변경 및 원고모집

변경: 4월 1일부터

1. 사색의 오솔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1시20분~25분사이
    - ② 담당: 나중렬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훈과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동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춘계 주교회...5월 5일<월>~9일<금>, 서울 상지회관에서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영연교 신부 회갑...5월 8일<목> 11시 30분-미사, 장소-회산 천주교회
  3. 성모 기사회 모임...5월 3일 오후 2시, 파티마 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4.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 3회 전주지구 피정...5월 5일<월> 오전 9시~오후 5시, 노송동 천주교회에서, 준비물-수도복, 기도서, 묵주, 도시락 지참, 회비-500원
  5. 제 4지구 2차 학생회장단 회의...11일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6. 남자 켄 본부의 공연...5월 4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참가비-500원
  7. 베델성서 연구생 입학식...5월 6일<화>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 문학강좌 안내...5월 17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 3층 강당에서  
주제-문학과 종교, 강사-조연현(한양대 교수)

(중앙)

전화 ③3511 주임 신부 문정현  
          ③3874 보좌 신부 설태현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강당, 구역장, 반장, 사도회 임원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3. 켄들의 오후: 남자 켄 본부의 공연 오후 2시, 중앙성당, 참가비-500원
  4. 교리교사 단합대회: 5월 4~5일
  5. 유치원 자모미사: 5월 8일 11시
  6. 견진교리: 19~24일까지 교리 있습니다. 견진하실 분은 1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성직자 피정: 5월 12~17일까지 부산 명상의 집
  8. 중·고학생 체육대회: 5월 5일
  9. 가정방문: 6일부터 경원동, 교사동 오전 10시
  10.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305,466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승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사도회·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임원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인후 아파트 구역미사: 8일<목> 오후 2시 30분 20동 201호(최로사 맥)
  2.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역의 사무엘 하편 전체
  4.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숲정이성당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니다: 신축기금을 인입하시고 납부 못한 분은 속히 완납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79,09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 ※ 예비자 선발예식: 오늘 공식미사 중 많은 예비자 인도바람
1. 사도회 월례회: 반장, 구역장, 공소회장, 사도회 임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바랍니다
  - 안전-야외미사, 성모의 밤 행사, 주교님 회갑연
  2. 다음주 평일미사 없습니다. 신부님 피정관계로 일시-5월 12~16일까지
  3. 중·고학생 체육대회(공소·본당친선): 5일 오전9시
  4.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 성서, 성가집 꼭 지참하시고 질서를 지킵시다
  5.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6. 진복회 특별 감사헌금: 34,000원
- 지난주 봉헌금: 186,17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유중소 형제력)
2. 부녀회 월례회: 7일<수> 오전 10시
3. 주일학교 소풍: 5일<월> 오전 10시출발, 도시락지참 장소-안행사,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대학생활: 본당내 1·2학년 학습지(12일부터) 월~금-7시~9시, 토-3시~5시 등록마감-5월 10일(박신부님께)

5. 예비자 안내: 신자 일인, 예비자 일인 인도 바람
  6. 성가대: 본당내 모든 어머니들 한분도 빠짐없이 가입 바람, 성가연습-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7. 사제피정: 12일~16일까지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 전례분과에서 실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0,09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사제관)
  2. 반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어린이날 행사: 주일학교 소풍(5월 5일-상관)
  4. 중·고생 체육대회: 상관본당 학생회와 친선 체육대회(5월 5일)
  5. 성령기도회: 수요일(7일) 저녁 7시30분미사 후
  6. 보미사 옷 기증자 찾습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4벌)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한기·차상열 신자들의 기도-김낙균·박순성
- 사순절 사제양성 후원금: 243,640원  
 지난주 봉헌금: 134,860원 교무금: 15,000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5월 6일
  3. 중·고학생 회장단 피정: 10일~11일
  4. 사제피정: 5월 12일~17일까지 피정에 참석하시는 사제의 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전동성당 신입액중(2만원), 태평동 강순도(20만원), 중앙본당 신입액중(5천원)
- 지난주 봉헌금: 159,5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공식미사 후(사제관 2층)
  2. 유아세례: 9시미사 후
  3. 자모회 철야기도: 5월 7일 저녁 8시미사 후, 성모동굴 앞에서
  4. 자모회: 성모성월 초 기증(5월말까지) 감사합니다
  5. 주일학교 도서 기증해 주신분 백홍자(안나), 김영원(올리바), 현종순(테레사)
  6. 학생회 춘계소풍: 오늘(5월 4일), 장소-구이저수지
- 지난주 봉헌금: 348,44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사순절 사제양성 저금통에 47명 참가(91,140원)
  3. 본당 후보철회: 5월 13일
  4. 가정방문: 6일
  5. 토요일 어린이 교리와 미사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중·고 학생미사: 일요일 오후 3시
  7. 본당운영 결산: 4월 수입-814,640원, 지출-755,687원, 잔고-58,953원
- 지난주 봉헌금: 78,985원 교무금: 4,000원